

건축문화 **사라**

Vol.063 10, FEBRUARY 2015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라**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라'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5.02

063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15대 회장 &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관련 지면 6면)

회장후보	 <p>1 강현구 건축사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회원을 지키는 리더! 어제와는 다른 내일의 광주건축사회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p>	 <p>2 박재홍 건축사 (주)홍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상생과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p>	 <p>3 정명철 건축사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통! 통! 소통과 화합! 도약하는 광주건축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판이 되겠습니다.</p>	감사후보	 <p>1 강석훈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선명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正理 됩니다.</p>
-------------	--	---	---	-------------	---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일반부문 대상_ 전주 붉은벽돌 박공집
 CL 건축사사무소 김종성 건축사 +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임용민 교수



인터뷰_사람&issue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 부위원장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심상봉 건축사 /광주



도시계획에서 건축사의 역할_ 신재욱 (관련 지면 6면)

시론 02

계사년 새해는 우리끼리 단합하고 연합하고 뭉치는 해가 되길... _김남중

선거지면 03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15대 회장 &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작품소개 04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전주 붉은벽돌 박공집"

설계경기 05

완화병동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증축사업 설계공모 / 강진고 교사 증개축공사 설계경기공모

특별연재기고 06

도시계획에서 건축사의 역할_ 신재욱

사람 & issue 07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을 역임한 심상봉 건축사와의 만남

NEWS 08~10

광주건축사회, 제28회 정기총회 표창대 수여자 결정 / 건축사 업무실적 제출서류 간소화 되다
 2015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에 조충기 건축사(서울, 간향 건축) 당선

완화병동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증축사업 설계공모

당선작_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 삼호 종합건축사사무소 강정용, 오요안 건축사



강진고 교사 증개축공사 설계경기공모

당선작_ (주)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오금열 건축사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박동준 건축사



※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사년 새해는 우리끼리 단합하고 연합하고 뭉치는 해가 되길...



김남중 회장
전라북도건축사회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을미년 청양의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양의 기운을 받아 건축인의 앞날에 번성하고 위풍당당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무리 크나무라도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 없듯이 우리 건축인들이 함께 손잡고 나아간다면 큰 숲을, 산을 만들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가족끼리 모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집, 종무식과 시무식을 하는 오피스빌딩, 연말 연시마다 모임에 분주한 음식점 상가... 큰길가에 건물들과 골목길의 작은 집들이 도시의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모두가 우리 건축사들의 머리와 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사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조경, 교통, 환경, 소방이 건축을 앞서서 리드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의 자리를 찾는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건축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던 젊은 시절, 꿈과 희망의 전부였던 건축사가 지금은 급변하는 국내외 건축 환경과 우리 사회의 제도 변화로 건축사로서의 자긍심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한, 건축사의 역할이 오늘날 발전된 사회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차별적인 저가 수주, 지역 소규모의 건축사 사무소 근무 기피로 인한 직원 채용의 난제, 사무소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 등 이중삼중의 악순환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만 하기 보다는 솔선수범하여 난제를 해결하는 해법 찾는데 앞장서는 건축사가 이곳 저곳에서 나와서 새해는 함께 뚝뚝 뭉치는 협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랫동안 선배 건축사님들이 쌓아 놓은 자랑스러운 건축사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고 우리가 지역 건축문화의 주역으로 존중 받는 전문인으로 새롭게 탄생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사님들의 성찰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의 건축물을 보면 선진국가에 비교하여 손

색없는 건물들이 이곳 저곳에서 관공서와 돈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의 큰상을 받고 신문, 잡지에 나온 건축물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에서 보니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이었는데 가까이에서 속을 들여다 보니, 텅비어 있는 공간, 쓰임새가 불편한 공간, 유지·관리비가 많은 건물, 사용자가 다시 내부 공간을 공사해야만 하는 건물 등을 보면서 같은 일하는 건축사로서 고개를 들수가 없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의 말이 생각 나네요. “모든 기술도 인간화 되지 못하면 기술종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예술도 인간화 되지 못하면 예술을 위한 예술로 전락한다“ 건축도 인간화 되지 못하면 건축을 위한 건축으로 전락합니다. 디자인도 인간화 되지 못하면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으로 전락합니다.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는 건축, 예고의 건축, 잔체하는 건축, 품 잡는 건축. 이런 건축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고향 사람이, 내 민족이 100년 200년 사용해야 하는 인간적인 건물을 설계하고 지어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건축사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부터는 행사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무에 직접 필요한 교육, 지역별 특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보며 이를 통하여 건축사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때 우리의 위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건축사가 각각 개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때, 공무원 선호도에 따른 행정의 위상이 높아지고, 협력업체와 기타 분야에서는 서로 단합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뭉쳐야 할 때입니다. 함께 뚝뚝 뭉쳐서 우리의 힘을,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줍시다.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뭉치면 건축사의 앞날은 밝다고 확실히 말하고 싶습니다. 계사년 새해는 우리끼리 단합하고 연합하고 뭉치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당선자 인사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하신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의 능력이나 비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회원'이 건축사로서의 자존심과 사명감으로 회원의 의무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원을 대표하는 회장과 집행부의 탐욕과 무책임으로 인한 결과인 동시에 자존심이 강한 전문가 단체다운 과감한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실책이기도 합니다. 회원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은 협회입니다. 건축사! 우리는, 우리의 '건축'이 건축사 개개인이 품은 야망을 모두 더한 것보다 크며, 학연이나 지연 혹은 사무소 규모에 따른 차이를 모두 더한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회원여러분, 작금의 상황은 대담하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업역을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축정보화사업'을 구축하고 미래업역개척을 위한 연구원을 활성화하여 회원의 경쟁력을 강력히 지원해야 합니다. 텐-파 이브-제로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야심이 과도하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우리 협회의 오랜 관행으로 보아 것처럼 거대한 계획들을 감당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협회집행부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만큼 결국에 가서 협회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회원여러분의 믿음과 결연한 의지입니다. 작은 대가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축사사명을 실천하는 우리 회원들의 용기와 국민과 건축주의 건축에 대한 이해가 중국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저력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 역경을 이겨냅니다. 희망과 원칙

을 간직한 채 결코 우리의 여정을 포기하거나 뒤돌아서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협회의 깃발아래 묵묵히 전진하여 '건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후대에 무사히 전했다고, 우리 후배들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게 꿈 만듭시다.

회원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회장 당선인
조충기 드림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15대 회장선거 후보자

- 후보자 합동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5. 2. 24 오후 2시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
- 선거일 및 장소 : 2015. 3. 13 (금) 오전 10시 신양파크호텔/ 제28회 정기총회



1 기호 **강현구** 건축사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회원을 지키는 리더
어제와는 다른
내일의 광주건축사회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학력▶

광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경력▶

광주광역시 지방건설심의위원 역임.
광주동구청도시계획위원 역임.
진도군청 도시계획위원 역임.
광주지방법원 감정건축사 역임.
법무부 범죄예방 분과위원장 역임.
광주건축사회 이사/감사 역임.
광주건축사 실험 이사/감사 역임.
새광주로타리클럽 회장 역임.
동신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조선이공대학 건축과 겸임교수(현)

핵심공약▶

- ① 설계감리비 정상화
- 감리협의회 지속적인 발전시켜 정상적인 업무대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사회 디자인 심의시 계약서를 제출토록하여 업무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 ② 복지의 연속성
- 장학제도와 노후복지를 위한 연금조성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감리협의회에서 배분되는 금액의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적립시키겠습니다.
- ③ 건축사의 위상강화
- 도시를 디자인하고 공간을 혁신하는 총괄건축사제도를 실시 유도하겠습니다.
- 분기별로 언론에 홍보하겠습니다.
- ④ 대관문제 해결
-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공서와 법정다툼해결을 하겠습니다.
- 인가,허가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모든 것을 평가 공지하겠습니다.
- 각 구청마다 다른 허가 및 심의기준 통일시키겠습니다.
- 안전점검위원회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 ⑤ 심의관련
- 각종심의 시 심의진행상태를 영상녹화토록 유도하겠습니다.
- ⑥ 대한건축사협회 관련
- 건축사 2Strike Out 절대불가 투쟁하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이나 사설지구승인업무시 건축사가 날인해야되는 구조로 법제화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업역확대와 지키는 일에 투쟁하겠습니다.
-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⑦ 감리협의회
- 전 회원이 감리협의회에 가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감리 건 분배 시 감리 5건 이상 제출 시 35%를 우선 분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감리사항을 규모별로 매뉴얼화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습니다.
- 설계감리분리 법제화에 적극 투쟁하겠습니다.



2 기호 **박재홍** 건축사
(주)홍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상생과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학력▶

목포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송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경력▶

광주건축사회 서구협의회 회장 (전)
광주건축사회 디자인자문회 제3기 위원 (전)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전)
광주건축사회 및 실험 이사 (전)
광주건축사회 법제 위원장 (전)
(주)홍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현)
목포시 도시·건축 위원회 심의위원 (현)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위원 (현)
광주YMCA 이사 (현)

핵심공약▶

- ① 상생하는 광주건축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타시도 법규 조례 검토분석으로 업무대행 한계선 설정
- 현장조사비 현실화 건의 / 시예산 반영 협의
- 감리협의회 제도정착을 위한 TF 구성
- 각 구협의회 활성화 예산지원 및 적정인원 분리 추진
- 대관업무 지원시스템 도입
- ② 혁신하는 광주건축사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사 1/2 직선제로 선출, 토론하고 행동하는 이사회 구축
- 건축정책규제정보위원회(가칭) 신설
-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록 공개로 정보의 투명화 추구
- 신진건축사를 위한 건축상 조례 추가반영 요청
- 디자인자문 대상 심의제도 개선
- 광역시 및 자치구 도시 건축위원회에 건축사 참여인원 확대
- 질의회신 광주건축사회로 창구 일원화
- 1억원 미만 설계·감리용역 입찰시 불합리한 협정제도 폐지토록 함
- ③ 준비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실무교육 시간축소 및 교육인정 범위 확대 (대한건축사협회 협의)
- 대한건축사협회 개설 교육(친환경, 에너지등) 지방 상시 개설화 요구
- 설계시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대학교와의 약정서 체결 및 지원방안 강구
-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를 위한 선·후배 건축사 연대방안 강구
- 리조트 회원권 추가확보
- 각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상향지원
- 광주건축사회 연금·장학기금·복지기금 발전 방향에 대한 장기계획수립



3 기호 **정명철** 건축사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통! 통! 통! 소통과 화합!
도약하는 광주건축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판이 되겠습니다.**

학력▶

광주송신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학사)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재학(박사과정)

경력▶

광주건축사회 이사/감사/부회장 역임.
광주건축사실험동조합 이사/감사/부이사장 역임.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 운영위원장 역임.
광주건축사 북구협의회의 회장 역임.
광주건축사회 정책개발위원장 역임.
대한건축사협회 대의원(현)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자문위원(현)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현)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사무총장(현)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외래교수 역임.
조선이공대학교 건축학부 외래교수 역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현)

핵심공약▶

- ① 첫 번째 통. 회원간의 '소통'
- 선,후배 건축사간의 상호소통
- 위원회 조직개신하여 회원 편의 확대
- 17개 시·도 건축사회와의 교류 활성화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장기발전계획 수립(상설연구팀 구성)
- 건축물 안전재난에 대한 대응팀 설립
- 광주건축사실험동조합 책임이사 도입
- 지속적인 건축사사무소 직원 실무교육 실시
- 공사감리협의회 전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개인연금을 통한 수익창출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장학재단 설립
- 국제교류사업 확대 추진(연번토목학회)
- ② 두 번째 통. 행정기관과의 '소통'
- 공공건축제도 도입
- 5개 구청간의 인허가 매뉴얼 구축
- 워크숍을 통한 공무원과 건축사간의 소통
- 건축 규제개혁 관련 입법 활동을 통한 의회와의 소통
- ③ 세 번째 통. 교육기관과의 '소통'
- 건축사 인재양성을 위한 건축동아리 지원
- 대학과 광주광역시건축사회와 공동으로 실무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수와 건축사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대학과 연변대학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인력수급지원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15년 감사선거 후보]



기호 1번 **강석훈**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선명)
- 조선이공대, 조선대학교 졸업
- 건축사사무소 선명 대표 건축사
-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수료
- 광주고등법원, 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 감정인 역임
- 광주광역시건축사회·광주건축사실험동조합 부회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 국제·법제·윤리위원 역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正理** 됩니다.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공익균형성의 원칙으로 제반 제도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 여러분께 한걸음 더 다가가는 건축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義 회원의 눈과 귀가 되어 **仁** 넓게 이익을 추구하고
正 모든 일을 바르게 하여 **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대한건축사협회 2015년 감사선거 후보]



기호 1번 **장양순**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창건축/서울)
- 대전공고 홍익대 동 대학원 석사 졸업
- 한서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 서울건축사회 이사 및 감사 역임
- 서울건축사신문 편집주간 역임
- 건축문화신문 초대 편집국장 역임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및 홍보편찬위원장 역임
- 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장 및 심사위원 역임



기호 2번 **김득수** 건축사(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서울)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계획 졸업
-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및 직무대행 회장 역임
- 서울시 영등포구 건축사회 회장 2회 역임
- 대한건축사협회 참여이사 역임
- 대한건축사협회 에너지분과 위원회 위원장 역임
- 법무부 교화위원회 위원 및 감사 역임

※대한건축사협회 제49회 정기총회('15.2.26)에서 선거 실시

4_ 작품소개

전라북도는 건축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 발굴을 위하여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을 개최하였다.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일반부문 대상 전주붉은벽돌 박공집

김종성 건축사 CL 건축사사무소
+ 임용민 교수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공동작업)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627-1
 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 : 1614㎡
 건축면적 : 144.41㎡
 연면적 : 198.66㎡
 규모 : 지상 2층
 높이 : 7.0m
 건폐율 : 8.95%
 용적률 : 12.3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벽체-적벽돌(치장쌓기), 지붕-알루프 징크(거열접기)
 내부마감 : 석고보드위 비닐페인트, 무늬목패널

■첫 번째, 재료의 선택 - 벽돌

농촌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익숙한 외장 재료로써 벽돌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조적의 아름다움과 표현의 다양성, 단단하고 오래지속 될 수 있는 내구성에 비하여 값싼 자재로 전락하여 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담고 싶었다. 주변에서 그저 그런 건물로 비추어질 위험성을 가진 선택이었지만, 넓은 대지가 품은 건물의 비례감이 재료 본연의 중후함을 강조시켜 모악산에서 시작된 거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다는 강한 느낌을 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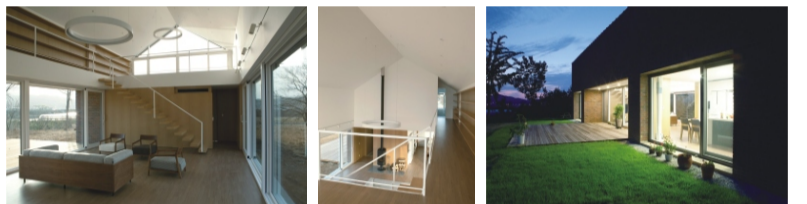
■두 번째, 조형의 선택 - 박공

지붕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혹서와 혹한에 적응하는 제일 단순하고 전통적인 선택으로 박공의 형태이다.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받아 올린 처마가 없는 박공은 건물의 순수한 형태를 강조하기 위함이며, 더불어 2층(5m)과 지붕의 높이(2.0m)로 인해 땅에 깊게 박힌 형상이 된다. 건물 외부에서 벽돌 면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첨부된 요소는 하나도 없고 반대로 남측 창호의 면들이 내부로 들어오므로 처마와 같은 효과의 개구부를 이루어 각기 다른 입면을 구성한다. 서측의 박공지붕과 삼각형의 창호는 서재에 저녁노을을 그대로 받으며 집안 전체에 석양을 드리운다.

■세 번째, 건축주의 선택 - 하나로 열린 내부 공간

건축주는 고등학생, 대학생 아들 둘을 둔 교수 부부이다. 첫 만남부터 강조한 부분은 남편이 글을 쓰는 서재에서 부인이 요리를 하는 부엌이 보였으면 한다는 것과 집안 내·외부의 모든 부분이 되도록 가리는 것 없이 한눈에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었다. 선택은 간단했다. 침실과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동시에 보이도록 열어냈다. 2층의 서재, 1층의 거실, 식당, 부엌이 7m높이의 공간에 열어 박공의 대공간을 하루 종일 만끽할 수 있도록 한 계획이 건축주가 제일 만족해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2층을 가로 지르는 긴 책장복도와 벽에 붙은 계단, 흔히 볼 수 없는 큰 원형 링의 조명, 슬림한 벽난로까지 어우러져 큰 틀의 공간에서 다양한 장소들을 제공한다.

위 세 가지의 선택은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강한 건축가들의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의견을 솔직하게 받아들인 약한 건축의 결과이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생각들이 좋은 건축주와 건축가가 만난다면 건축의 거주성은 지속적으로 오래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본 병원은 사회여건의 변화에 부흥할 수 있는 완화병동 및 부대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경제성과 편의성을 두루 갖춘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설계공모를 통하여 응모작품을 평가하고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당선작 : (주)길 건축사사무소 + 상호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주)윙그룹 건축사사무소 (자료 제출하지 않아 미계재)
 가작 : (주)중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자료 제출하지 않아 미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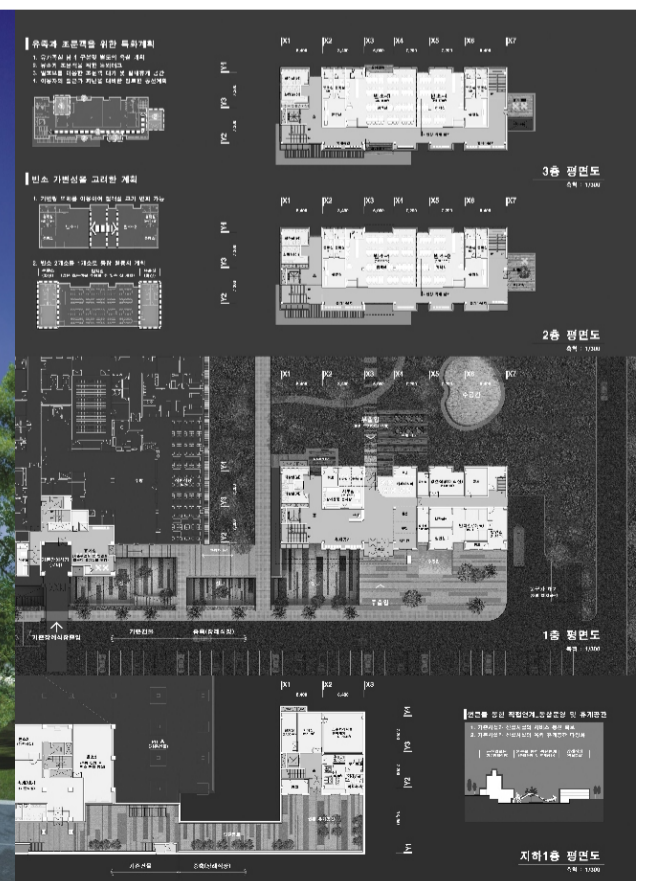
완화병동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증축사업 설계경기공모

당선작

이길환 건축사(주)길 건축사사무소
+ 강정용, 오요안 건축사 상호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군산의료원부지 내)
 대지면적 : 49,667㎡
 건축면적 : 6,197.75㎡
 연면적 : 28,657.47㎡
 건폐율 : 12.48%
 용적률 : 57.70%
 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중층 지하 1층/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치장벽돌쌓기(중층 16.76m)
 주차 : 548대(기존주차 546대 + 운구차 2대 추가설치)



본 설계공모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농어촌지역 고등학교 교육의 질과 교육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요셉여고(사립)를 “강진고”로 통폐합하는 사업 취지를 잘 나타내고, 지역중심 고교로써 우수한 시설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함

당선작 :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가작 :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자료 제출하지 않아 미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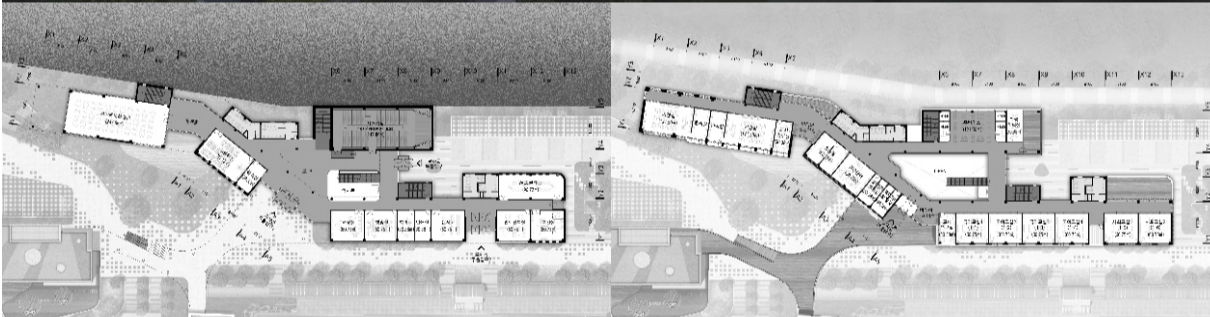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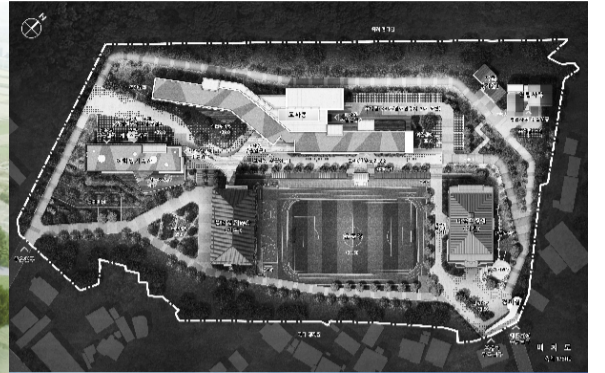
강진고 교사 증개축공사 설계경기공모

대지위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고성길 15-7 (서성리 302-5)
 대지면적 : 34,754㎡
 건축면적 : 5,527.07㎡
 연 면 적 : 14,547.42㎡
 건 폐 율 : 15.90%

용 적 륜 : 40.87%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알루미늄시트, 적벽돌, 테라코타패널, 로이복층유리
 주 차 : 52대 (장애인 3대포함)

당선작

오금열 건축사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 박동준 건축사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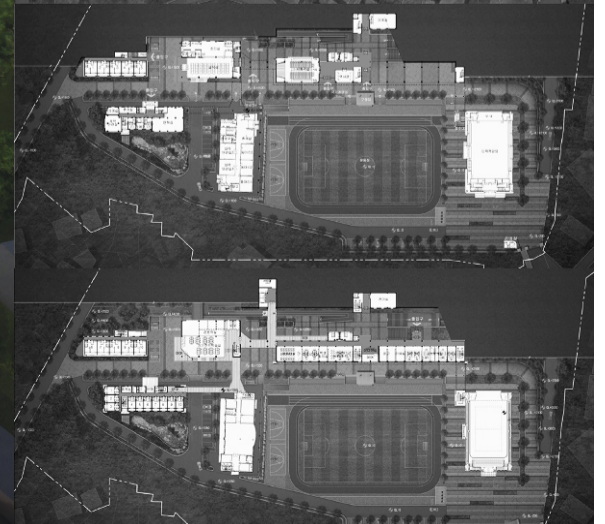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고성길 15-7 (서성리 302-5)
 대지면적 : 34,754㎡
 건축면적 : 5,394.46㎡
 연 면 적 : 14,008.58㎡
 건 폐 율 : 15.52%

용 적 륜 : 40.30%
 규 모 : 지하 2층, 지상 4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적벽돌치장쌓기, 라인징크(거멀접기)
 주 차 : 67대(장애인 5대, 대형버스 1대포함)

우수작

김기준+임경희+장정수 건축사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도시계획에서 건축사의 역할



신재욱 사무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
지역 및 도시계획박사
newurban@korea.kr

>> 건축사에게 도시계획의 의의

- 1부 : 건축사에게 도시계획의 의의 - 2015년 1월 게재
- 2부 : 좋은 도시의 요건은 무엇인가 - 2015년 2월 예정
- 3부 :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드는 도시인가? - 2015년 3월 예정
- 4부 : 누가 도시계획을 주도하는가 - 2015년 4월 예정

고성장시대의 종료와 함께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면서 확장형 도시계획에서 건축적 기법을 강조하는 도시재생이 요구되면서 전통적 도시계획기법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건축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건축사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건축사에게 도시계획의 의의

건축설계를 하는 건축사의 입장에서 도시는 친밀한 대상이다. 건축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사는 도시계획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도시계획을 별개의 학문이나 전문분야로 인식하고 계획가의 책무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다. 이러한 유혹은 건축사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도시계획은 생활과 밀접함에도 복잡한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으로 자기 집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보잘 것 없던 땅 앞으로 지하철역이 생기는 바람에 버락부자가 되기도 한다. 자기가 제안한 내용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보는 도시계획가의 희열 뒤에는 얼마 되지 않는 보상비를 받고 정든 땅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의 비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도시계획이 전문분야로 간주되면서 어렵다는 선입견도 있으나, 주부·운전자도 화제로 삼을만큼 우리 일상생활의 주변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기도 하고, 정보는 곧 돈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비밀도 많을 것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복잡한 느낌으로 여겨졌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밀접하면서도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건축과 도시계획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건축과 도시계획은 밀접하면서도 경계를 가지고 있었다. 1960년대에는 경공업이 번창 하였으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 중공업 정책으로 변화되면서 산업용 도로확충이 필요하게 되었고, 도시인구가 급증하였다. 그 결과 주택난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도시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토지이용 도면을 도시계획으로 인식하였다. 도로계획선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지역·지구 어떻게 색칠할 것인지 등 물리적 개념에 치중하면서 도시계획 정보를 사전에 알아내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졌다. 이 시기에는 경

제난과 주택난 해소에 역점을 두어 도시의 계획적 개발보다는 밀어부치기식 개발이 우선이었다. 일례로 지역·지구내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이 아닌 개발법령인 「건축법」에서 규정할 만큼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1970년대 들어서는 경제부문에서 외형적 성장을 거두었다. 그런가운데 1980년대 접어들어 도시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하였으나, 자유방임적 시장주의 논리에 밀려 실제 관련 제도는 마련되지 못하였다. 그 이후 1990년대에는 후기산업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면서 양적팽창에서 질적변화를 추구하면서 도시의 계획적 개발이 본격 요구되었고, 비로소 선계획-후개발 체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분석해보면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 경제성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입지선택의 변화로 들 수 있다.

역사적 과정을 분석해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를 3가지로 구분하여...

첫째, 인구나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을 살펴보면 2001년 8.4%에서 2020년에는 90%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주택공급수를 살펴보면 평균 1년에 50만가구정도 공급되고 있다.

2014년의 경우는 34만가구를 분양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는 89,687가구, 서울이 33,387가구, 경남 33,158가구, 부산 31,794가구, 대구 25,631가구, 충북 20,151가구, 경북 17,629가구 순이다. 분당이 10만호이므로 매년 국내에 분당과 같은 신도시 5개정도가 공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전체 공급물량의 약 2/3은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고, 약 1/3은 비수도권에 공급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개발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구수 증가도 도시개발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1995년 12,956천가구에서 2020년에는 19,093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구 증가의 원인은 1인가구 증가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결혼한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고, 20살이 넘으면 혼인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주말 부부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둘째, 삶의 질 향상을 들 수 있다.

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대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병리를 해결할 필요가 생겨났다. 경제가 성장하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 중심의 도시구조에는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거생활양식이 변모 되었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도시는 변하고 있다.

셋째, 입지선택의 변화이다.

과거 자동차 보급이 많지 않은 우리의 동네는 잡화점이나 생필품점이 주거지와 혼용되어 입지하고 있어서 걸어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산업혁명 후 많은 도시들이 공업도시로 성장하였지만 접근성과 인지성을 이유로 하여 도시는 고밀개발이 되었다. 그러나 철도, 도로, 승용차의 보급으로 도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외연적 확산을 가져왔다.

도시의 교외화에 따라 산업활동이 분산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증가로 외곽지역이 개발되었다. 도시 밖으로 가면 환경로나 자연적으로 쾌적하게 되고 도심에서 방 3개짜리를 외곽으로 가면 4개가 되는 장점으로 외곽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불러오면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지에 대한 숙제가 주어졌다.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범포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이은주 세무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세무 관련 자문위원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대표

저희 사무실은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무관련 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제공.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등
불복대행 양도, 상속 등 재산세제의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동구청 및 북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현)북구청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현)광주지방 국세청 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94 / 4층
(서광주세무서 앞)
전 화 : 062-383-0002 팩스 : 062-383-1181
휴대폰 : 010-3256-9759
e-mail : eunjootax@hanmail.net

HP 렌탈서비스

월 50,000원으로 프린터 스트렉스 싹!

HP 정품 렌탈 BOSS 프로그램

가장 좋은 가격으로 만나는, HP 정품 소모품 & 프린터
HP 공식 오피스젯 프린터 렌탈 전문점

hp 렌탈 전문점
프린터세상
www.ahp.co.kr
T.062-676-7779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을 역임한 심상봉 건축사 (現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 부위원장)와의 만남

“건축공사감리협의회 발족 1년! 소규모건축물의 위법 부실공사가 근절되고 설계비의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 나타나”

심상봉 건축사는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2011. 3~2013. 3)을 역임하면서 광주에서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일본과 베트남 및 중국의 건축 관련 단체와 국제건축문화교류를 통해 광주 지역 건축문화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회장 퇴임 이후에도 건축사협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과 자문으로 활동하며 협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였고, 작년 4월 부터는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전히 건축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본지의 만평을 통해 재능기부를 몸소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지난 2월 2일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이다.



광주/(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심상봉 건축사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가 발족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계 감리를 분리하여 철저한 공사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적 여건에 따라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가 발족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해주신 윤익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발족되기까지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셨던 직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제도의 정착 과도기 속에 인내심을 갖고 1년 동안 지켜봐주신 회원님께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 발족 1년간의 운영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의 운영기간을 거치고 난 현재는, 건축주와 건축사의 인식 변화로 인한 소규모건축물의 위법 부실공사가 근절되고 있으며, 설계비의 현실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며 나타낸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회원과 타지역설계자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감리협의회 회원의 수주가 힘든 점도 있었으나, 광주건축사회와 업무대행 동행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의회는 미가입 회원들의 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미가입 회원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 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설계입문, 학업 등)

어릴 적 중학교 때 꿈은 화가였습니다. 강연균 선생님의 로딩화실에서 스케치를 배우며 그림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건축으로 바뀌게 된 것은 경제적 현실이 크게 작용하였고, 내 취향에 가장 근접된 직업이 건축예술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1979년에 졸업하고, 군전역 후에는 한국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여 건축설계를 시작했으며, 그 후 덕산 그룹 기획실과 덕산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거쳐 2000년 부터 현재까지는 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에 몸담고 있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건축철학이라고 답을 하기에는 아직 제가 정립해야할 건축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듯 하여 스스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추구하는 건축은 장식이 배제된 단순함과 사용자에게 행복함을 주는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운 때와 부끄러운 때가 있었다면?

자랑스럽고 보람 있었던 적은 광주건축사회장 재임중(2011. 3월~ 2013. 3월)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국의 건축사들에게 빛을 광주를 소개했던 것이고, 부끄러웠던 때는 건축설계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직업윤리와 가치관을 망각한 채 불법과 덤핑 수주 등으로 사회적 물의와 갈등을 유발 시키는 일부 건축사들이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영광 대마면의 자그마한 시골 교회를 설계하였을 때 받았던 깊은 감명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나이 드신 성도들이 대사리(다슬기)를 잡아 헌금하는 모습과 공사에 직접 참여하여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를 고르면서 성전을 완성시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건축에 대한 경외감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축이 그렇게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갈려면 혼자자라, 멀리 갈려면 함께 가라. 외나무가 되려면 혼자서라. 푸른 숲이 되려면 함께 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안에서 선, 후배라는 귀한 만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건축사 공동체를 푸른 숲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후배건축사들에게 건축전문가로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우리 건축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법제화 이전에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 및 포부

건축은 예술입니다. 그 건축 예술을 실현하는 사람이 우리 건축사일 것입니다. 건축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의 자리에서 내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작은 포부가 있다면 그동안 계획해왔던 건축과 그렸던 그림들을 한자리에 모아 개인전시회를 개최하고 싶다는 꿈을 실천해볼 생각입니다.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 주요경력

-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79년)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13대 회장 역임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 역임
-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 공동의장
- 광주광역시, 목포시 건축위원
- 광주지방검찰청 시민검찰위원, 형사조정위원
- 광주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 광주폴리 시민협의회 위원
-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고등법원 건축관련 사례발표



▲2012년 대한민국건축사대회본대회에서 건축비전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심상봉 회장(가운데 김황식 총리 뒤쪽)

심상봉 건축사가 설계한 대표작품들



▲광주 광산구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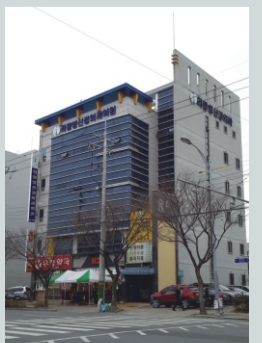
▲광주 문성고등학교



▲임해수련원 현상설계 우수작



▲여수 빌딩



▲전남 여수 병원 건축물

광주건축사회, 제28회 정기총회 표창패 수상자 결정

– 지난 1월 이사회의에서 지역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건축사 등 선정

광주건축사회(회장 안길전)는 지난 1월 19일 광주건축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월 13일 오전 10시 신양파크호텔에서 개최하는 제28회 정기총회에 표창패 수상 대상자를 결정했다.

표창구분 및 추천 기준은 감사패와 공로패로 나뉘지며 감사패는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되고, 공로패는 재임기간동안 협회발전에 기여한 임원과 퇴임 원로회원, 장기근속직원에게 수여된다. 감사패 및 공로패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감사패 : 북구청 건축과 과장 **임안재**, 광주시 도시재생국 건축주택과 주무관 **정용래**,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 건축과 주무관 **나용선**, 서구청 건축과 실무관 **윤옥민**, 남구청 건축과 주무관 **강동일**, 광산구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팀장 **정일권**, 남구청 건축과 주무관 **장명훈**
- * 공로패(퇴직기념)/폐업 원로 회원 : 성하 건축사사무소 **정건주**(퇴직회원)
- * 공로패/임기기간 동안 협회발전에 기여한 임원 : 부회장 **김 곤** 선택 건축사사무소, 부회장 **정명철**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이사 **박재홍** (주)홍 건축사사무소, 이사 **정상채** 건축사사무소 초석, 이사 **정명환**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감사 **윤양현** 이조 건축사사무소
- * 장기근속 표창패/장기 근속한 사무국 직원 : 광주건축사회 과장 **김민주**

광주광역시 ‘사직공원 전망타워’ 오는 3월 시민에 선보인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 문화·관광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등 광주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사직공원 전망타워(광주 남구 사직길 49-1)’가 오는 3월 광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광주시는 지난 1973년 건립돼 노후되고 전망 기능을 상실한 팔각정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88㎡, 높이 13.7m 규모로 재건축, 지난해 11월 사직공원 전망타워를 준공했다.

앞으로 관리 운영은 광주공원관리사무소가 맡고, 입주자 선정 등 개관 준비가 완료되면 3월 즈음 시민에 개방될 예정이다.

전망타워는 관리동과 전망동이 연결된 다리(브리지)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타워 기둥에 설치된 원형 계단을 오르면서 광주의 경관을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옥탑 전망대와 3층 전시관에 설치된 망원경을 통해 무등산의 4계절과 도심 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볼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사직공원 전망타워가 준공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문화·관광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윤정권 사무관, 대통령 표창 받아

– U대회 신설경기장 터키입찰 가격경쟁 유도료 예산 절감 공적 인정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윤정권 사무관이 2014년도 국정과제 추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윤정권 사무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둔 설계평가 방식을 적용해 입찰 참여업체 간 가격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건립 등 대형사업 프로젝트를 무리 없이 추진해 올해 열리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979년 공직을 시작한 윤정권 사무관은 남구 교통과장,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과장, 체육대회지원국 경기시설과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시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건축사 업무실적 제출서류 간소화 되다.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실적 관련 서류 생략돼

그동안 건축사들에게 업무실적신고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을 줬던 서류제출 방식이 변경됐다.

지난해 말 개정된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사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 제출시 건축허가서, 신고확인증, 사용승인서, 감리자 변경신고서 등의 첨부서류가 생략되어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 업무가 간소화 되었다.

이제 대한건축사협회 업무실적 제출 서류 담당자가 세움터의 정보조회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건축사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세움터가 제공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학교시설 또는 국방, 군사 시설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또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승인서 준공검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된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 방법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건축사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설계 및 감리 업무에 대한 실적 신고 방법

- ①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 ② 협회업무중 건축사실적관리(프로그램)를 실행
- ③ 건축개요 등록
- ④ 소속 시·도건축사회에 접수(접수번호 부여됨)
- ⑤ 업무실적제출서(설계업무실적제출서,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를 출력
- ⑥ 출력한 제출서에 도장 날인
- ⑦ 아래의 증빙서류(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 건축사회에 제출(팩스 불가).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 제출 시 종전에 제출하였던 건축허가서, 신고확인증, 사용승인서, 감리자 변경신고서는 대한건축사협회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세움터가 제공하는 자료로 확인함에 따라 제출하지 않음. 다만, 세움터가 제공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건축승인과 관련한 설계 및 공사 감리업무 실적은 다음의 추가서류 제출

1.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접수시
 - 가. 건축사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1부.
 - 나.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1부.
 - ※ 단, 학교시설인 경우 :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1부.
 - 국방·군사시설인 경우 : 국방·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서 1부.
2.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 접수시
 - 가. 건축사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1부.
 - 나.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1부.
 - ※ 단, 학교시설인 경우 : 학교시설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1부.
 - 국방·군사시설인 경우 : 국방·군사시설 준공검사서 1부.

전라북도 완주군 지역건축사회, 완주군과 재능지식기부 양해각서 체결

– 지난 1월 29일 완주군청 회의실에서 진행, 저소득 계층에 각종 건축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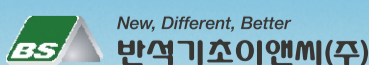
전라북도 완주군 지역건축사회(회장 김선희)는 지난 1월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완주군과 재능지식기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완주군 지역건축사회는 이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소규모 주택신축과 대수선을 할 경우 건축설계를 무료로 해주고 사용 승인 시에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건축 관련 계획과 시공 주택관리방법 등에 대한 상담도 실시한다.

공사의 첫 단추, 기초공사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세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곳이 없습니다
공사의 첫 단추인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축물의 결과도 부실해집니다
공사의 첫 단추를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는
시공사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공법

ROTARY PILE

신축, 증축, 기초보강

MICRO PILE

고밀도 지반보강

GeoCon

건설신기술 640호
신개념 흙막이 가시설공법

PS-S

[피에스테크 기술 제휴]

2015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능

2015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이 지난 2월 2일 공고됐다. 시험일자는 2015년 5월 17일이며 시험시간 및 장소는 4월 29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 3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 처리비용)이 소요되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안내 받으면 된다.

합격예정자 발표는 6월 5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02-3415-6873~4)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전국 시·도건축사회 총회 일정 안내

일 자	건축사회	시 간	장 소	비 고
2/24(화)	충 남	13:00	온양그랜드호텔(충남 아산시 충무로20번길 7)	임시총회
3/06(금)	전 주	10:00	오펠리스(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3)	정기총회
3/12(목)	경 남	13:30	경남도청 도민홀-예정(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3/13(금)	광 주	10:00	신앙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광주 동구 지호로 214-7)	
	경 북	11:00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경북 경주시 보문로 338)	
3/16(월)	전 남	13:30	순천시 에코그라드 관광호텔(전남 순천시 조례동 1587-4)	
3/17(화)	충 북	10:30	명암타워 그랜드볼룸(충북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685-31)	
3/18(수)	대 전	14:00	오페라웨딩 3층(대전 서구 둔산남로 50)	
3/19(목)	대 구	15:00	호텔 인터볼고 엑스코(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80)	
	전 북	16:00	오펠리스(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3)	
3/24(화)	울 산	16:00	울산MBC컨벤션 2층 아모레홀(울산 중구 염포로 55)	
3/25(수)	경 기	10:00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경기홀(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부 산	15:00	농심 호텔(부산 동래구 금강공원로 20번길 23)	
	인 천	15:00	송도 컨벤시아 2층(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3/26(목)	서 울	14:00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	
	충 남	미정	충청남도건축사회 신축회관-예정(충남 예산군 수암산로 235)	
3/27(금)	강 원	11:00	원주 인터볼고(강원 원주시 반곡동 동부순환로 200)	
	제 주	18:00	제주 칼호텔 2층(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1)	

※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정기총회 일정은 미정

내 나이가 어때서

인생 100세 시대라 한다. 이를 네 단계로 나눠 계절에 비유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25년씩 봄(1~25), 여름(26~50), 가을(51~75), 겨울(75~100)로.. 이에 따르면 나는 '가을'에 접어들었다. 절기상으로 보면 수확의 계절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풍성한 수확을 위한 준비를 했는가? 되돌아본다. 하기가 요즘은 수확의 계절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언제든 다양한 방법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수많은 것을 수확한다. 나라에 따라, 지역에 따라 1년에 다모작 하는 곳도 있다.

건축사들은 신살 이전인 '여름'에 더 풍성한 수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선배 건축사들이 '가을' 수확 철에 태풍을 만나 떨어지는 과일들처럼, 신 후반이 되면서 동력을 잃고 주춤거리는 것을 봐 왔다. 나에게도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과제라 생각한다. '우리'라 하니 약간은 맘의 위안은 되지만...

요즘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하나 있다.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다.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오/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나도 이 노래를 좋아한다.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계절이 어때서' 설계하기, 작품하기, 사업하기, 즐기, 사랑하기, 등등 딱 좋은 나이란 것을 주문(呪文)한다. 딱 좋은 계절이란 것도 스스로에게 주문한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 젊은 날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란 것을, 지금 내 앞에 있는 일과 사람이 가장 중요하더라 단명한 진리를 되새겨 본다.

지금, 현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나이와 계절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하고, 토론하고, 걱정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용기를 가져본다.

"세월아 비켜라 /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박홍근 자문위원_ aforyou@naver.com>

알림마당

1. 광주건축사시험 대출관련안내
 광주건축사시험 신용등급별 대출 한도가 상향 되었으니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문의 전화 바랍니다.
 - 아파트 담보대출 연 3.8% - 부동산 담보대출 연 4.3% - 신용대출 : 신용등급별 상이
 ☞ 문의전화 062-527-8890~1

2. 광주건축사시험(에코디자인), 2015년 대명리조트 이용 관련 안내(15년 3월 ~ 16년 2월)
 - 이용신청 : 매월 이용 예정 전월 1~5일 까지 전자메일 접수 (15년 3월 1일 이후 날짜부터 접수 받습니다.)
 ☞ 메일주소 : gacu08118@nate.com
 - 이용자신청 : 선착순
 - 이용신청 제한 ☞ 월간최대 숙박 : 6박으로 제한 (성수기 별도)
 ① 주말 : 1실 2박 이내 (2박3일) / 1인 최대 ② 주중 : 무제한
 - 객실타입 : 스위트, 패밀리 (선택가능 / 선착순배정) - 객실구조 : 클린형, 취사형 (리조트 상황에 따라 배정)
 - 이용자명단 : 매월 협회 공지사항에 공개
 - 이용제한 : 이용자 선정 후 취소 시 재이용 불가

3. 광주건축사시험(에코디자인), 대명리조트 성수기 콘도이용방법 안내
 - 성수기
 ① 연중 3일 이상 연휴기간 ② 설 연휴 ③ 추석 연휴 ④ 여름휴가철 (7월 24일 ~ 8월 30일)
 - 이용신청기간
 ① 상반기 성수기 : 2015년 2월 1일 ~ 2015년 2월 28일
 ② 하반기 성수기 : 2015년 5월 1일 ~ 2015년 5월 31일
 - 이용자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회장단 주례회의 때 추첨)
 - 성수기 이용제한 : 동일 성수기 기간 2팀 이내 선정

건축사 만평

심상봉 건축사작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

광고 및 공동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 700,000원
- 하 단 광 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 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 521-0025~6 F. 062) 528-0026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담당임원 정명철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편집위원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종호, 양우현, 박주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2015년 새로운 선택!

새로운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이 선출됐다. 호남지역에도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 건축사 당신의 선택은 누구에게...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원일동 1,000,000원
-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원일동 1,000,000원
- 전라북도광역시건축사회 회원일동 1,000,000원
- 정명철 (주)에이엠지그림 건축사사무소 350,000원
- 반석기초이앤씨(주) 300,000원
-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에 조충기 건축사(서울, 간향 건축) 당선

— 유효투표수 6,634표 중 1,729표(26.06%) 받아 첫 직선제 회장에 선출



대한건축사협회 강성의 선거관리위원장(좌측)으로부터 당선증을 수여받은 조충기 당선인(우측)

기존 간선제로 각 시·도건축사회 대의원들이 선출했던 대한건축사협회장 선거에서, 전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실시한 이번 제31대 대한건축사협회장 선거에서 서울지역 건축사사무소 간향 조충기 건축사가 당선됐다.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지난 1월 20일과 21일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총선거인수 8,247명 중 6,634명이 참여해 80.44%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중 1,729표(26.06%)를 받은 조충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간향)가 당선되었으며, 김영수 건축사(주)민영 종합건축사사무소가 1,725표(26%), 강석후 건축사(수림 건축사사무소)가 1,680표(25.32%), 정태복 건축사(부)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가 916표(13.81%), 이창섭 건축사(주)유빅스 종합건축사사무소가 584표(8.8%)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충기 당선자의 공약사항으로는 '건축사업무대가 단계별 대가기준 입법화'를 비롯하여 '설계대가예치제, 감리대가예치제', '공공감리, 사후설계관리 업무 개선 법제화', '건축저작권보호센터 설립' 등이 있다.

광주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임준호 건축사 / SH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치평로 116 (치평동, 월계수타운), 305호
- * 변경(상호변경)**
 - 주정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정호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정호
- * 변경(소재지)**
 - 고경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광주 서구 금화로73번길 17, 상가동 1층 102호 (금호동, 진흥더무벤시아파트)
 - 전승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이작 광주 서구 시청로 41, 2404호(치평동, 대우디오빌)
 - 곽승동 건축사 / 엘드림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경열로 45번길 13, 상가동 202호
 - 김석호 건축사 / 시엠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서하로 345-1, 2층(문흥동)
- * 결혼**
 - 선명숙 건축사 / 해음 건축사사무소 본인결혼 / 1월 24일 (토)
 - 강찬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광림 자녀(아들)결혼 / 2월 7일 (토)
 - 강성철 건축사 / 디자인그룹 현대 건축사사무소 자녀(딸)결혼 / 2월 8일 (일)
- * 부고**
 - 조성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한빛 빙모상 - 2월 3일 (화)
 - 윤익상 건축사 /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빙모상 - 2월 4일 (수)

전남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이동현 건축사 / 다인 건축사사무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대석길 61, 2층
- * 전입**
 - 조민형 건축사 / (주)원흥건설 건축사사무소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46-2
- * 변경**
 - 황승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희림 전남 여주시 시청서1길 8-2

※ 건축허가관련 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전북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이현숙 건축사 / 이노베이션 건축사사무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07-3(갈산리)
 - 김중수 건축사 / 이도 건축사사무소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8(이도리)
 - 공선식 건축사 / 부현 건축사사무소 전북 남원시 시청로 57(향교동)
 - 이균수 건축사 / (주)맥 건축사사무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219-1(남중동)
 - 반은희 건축사 / 행복한 건축사사무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39(읍내리)
- * 변경(소재지)**
 - 윤창식 건축사 / 윤 건축사사무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기지로 37, 503호(갈산리)
 - 김성수 건축사 / 고려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97(중화산동2가)
- * 부고**
 - 곽영석 건축사 / 광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1월 14일 (수)
 - 권영욱 건축사 / 영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1월 29일 (목)

광주·전남·전북 2·3월 지역축제

- ▶ 12, 19 (금) ~ 02, 25 (수)까지 여수밤바다, 빛노리아
 - 전남 여주시, 거북선공원, 돌산공원
- ▶ 12, 27 (토) ~ 02, 15 (일)까지 제4회 2015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 전북 남원시, 지리산 바래봉 일원 및 허브밸리
- ▶ 03, 01 (금) 제50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
 - 광주 동구,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 03, 04 (수) ~ 03, 07 (토) 2015 광주국제농기자재전시회
 - 광주 서구,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 ▶ 03, 08 (일) 제7회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섬진강 둔치(섬진교 아래)
- ▶ 03, 14 (토) ~ 03, 22 (일) 제18회 광양매화축제
 - 전남 광양시, 섬진마을
- ▶ 03, 20 (금) ~ 03, 23 (일) 제37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 전남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호, 2015. 2. 3 ~ 2015. 2. 23)

- 개정이유**
 - 건축물내 화장실·욕실 등에서 미끄러짐이나 실내구조물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 거주환경 기준 개선 필요
 - * 고령자 안전사고('12.1~'13.8) 6,650건중 미끄러짐, 충돌등의 사고가 2,972건(약 45%), 내부 마감재 등에 의한 사고가 2,128건(약 32%); 한국소비자원 통계
 - '14.5.28 개정 『건축법』 및 시행규칙('14.11.28)에 따라 건축물 실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일정용도(규모)의 건축물은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르도록 실내건축제도 신설
- 주요내용**
 - 거실 벽, 반자 등 불연성 재료 사용(안 제4조)
 - 거실 벽, 반자부분 마감은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재료, 거실에서 외부로 통하는 복도·계단의 벽 등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 * 불연재료(콘크리트, 벽돌, 유리 등), 준불연재료(석고보드, 미네랄 텍스 등), 난연재료(난연합판, 난연프라스틱판 등)
 - 복도, 욕실 등 바닥마감재 기준(안 제5조)
 - 복도 및 계단바닥은 미끄럼방지 구조 및 재료(논슬립 패드 등)
 - *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상이나 형광색 등
 - 안전난간 기준(안 제6조)
 - 추락방지 등을 위해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세로방향 등)으로 하고 난간간격은 10cm이하, 높이는 120cm이상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3.17.까지 입법예고)

-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그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km2(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13 도시계획 통계)
 -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 금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이다.

용도지역	기 존		변 경	
	도로율	주간선도로율	도로율	간선도로율
주거지역	20 ~ 30	10 ~ 15	15 ~ 30	8 ~ 15
공업지역	10 ~ 20	5 ~ 10	8 ~ 20	4 ~ 10

-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 15% 이상, 산업단지 도로율 8% 이상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마이다스아이티 2014 ICT Innovation 대통령상 수상



마이다스아이티가 2014년을 빛낸 대한민국 혁신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열정과 정진으로 세계 공학 기술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설계·해석분야의 핵심 기술인 컴퓨터 그래픽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술과 최적화 설계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기술자립을 실현하고 특히 건설분야 공학용 SW 세계 1위로 전세계 110여 개국에 수출해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 받았습니다.



www.midasarchi.com



ICT 이노베이션 대상이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1999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상으로 ICT(정보통신기술)와 SW의 융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창조 경제 실현에 기여한 단체 및 유망자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건축이란?

승효상 선생님의 「건축, 사유의 기호」에서 그는 자신에게 영향을 준 건축을 찾아 사유의 여행을 말하고 있다. 그는 세계 각지의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건축에 대한 사유를 확장시키고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건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따라서 나는 이 책을 읽고 승효상 선생님의 건축 철학을 엿보면서 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건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건축이란 무엇일까? 인간은 건축 속에서 생활을 영위한다. 즉, 태어나서부터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건축과 인간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건축은 인간의 행위를 넘어 인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건축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변화시킬 수 없어도 길게 놓고 보면 인간에게 즉, 이용자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시설임이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건축이라 생각한다.

또한 건축은 삶에 대한 그 삶의 조직인 사회에 대한 사유의 결과로써 탄생하는 시설물이다. 그렇다면 사유란 무엇인가?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작용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성작용과 결과물이다. 건축에서 감성적인 공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전하고 특정 기능을 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필연적으로 공공적인 기능도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좋은 건축이라는 것은 올바른 사회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이성작용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것 보다는 미완성인 건축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 한다. 미완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완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건축은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환경에 따라 재개발되거나 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건축은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변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가변적이며 유동적인 특징도 지녀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의 완성도가 높아 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의 삶이 녹아든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그 속에 수많은 세월 동안 퇴적되었던 삶의 기억을 유지시켜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좋은 건축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인성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올바른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이성작용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 발맞추어 변할 수 있는 공간을 지님으로써 삶의 기억을 다음세대로 전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좋은 건축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좋은 건축을 하는 방법과 태도에 대한 고찰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내게도...

물밑 길

경운기가 물밑 길로 달리고 있다

별교장 가는 군내버스 시간 맞추려는 것이다

물까지는 삼십 분

밀물이 들기까지 한 시간 반

고막, 바지락, 낙지, 해산물 내리는 데는 삼십 분

김씨의 경운기 맘이 바빠지지만

행여 송어 떼라도 지날라치면

잠시 멈췄다 지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경운기는 제 몸을 끌고

물밑 길을 가고 있다

발목까지 젖은 채

통통거린다.

김영란 주부
광주 광산구

책 소개

「흐르는 강물처럼」

파울로 코엘료 지음 박경희 옮김 (문학동네 2008. 10. 18)



브라질 태생이며 '연금술사'라는 저서로 전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은 파울로 코엘료가 지은 '흐

르는 강물처럼'을 다 읽고 책을 내려놓은 순간 마치 크고 깊은 잔잔한 호숫가를 여행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파울로 코엘료는 세계적인 작가로 성공하기 전 다양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다. 십대 시절에는 세 차레나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청년 시절에는 브라질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반정부 활동을 하다 두 차레 수감되어 고문을 당했으며,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히피문화에 심취해 록밴드를 결성하고 120여 곡의 음악을 만들어 브리질 록음악에 큰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다.

젊은 나이에 저널리스트, 록스타, 배우, 희곡작가, 연극 연출가 등 다양한 부문을 경험하기도 했고 30대 후반에 들어 순례자의 길에까지 나서며 세상사 이치

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구하게 된다.

그 과정을 거쳐 '순례자'라는 책으로 첫 데뷔를 하고, 전세계 3000만 명의 독자가 읽은 '연금술사'가 탄생하게 됐다.

그 후에도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악마와 미스플랭' 등등 뛰어난 작품들을 내놓으며 명실상부한 세계적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됐다.

흐르는 강물처럼은 코엘료 자신의 자전적 수필을 담은 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주고 그들의 삶에 영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 또한 이 책을 읽으며 많은 영감을 얻었으며 감정적인 표현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게 됐다.

크고 깊은 호숫가의 여행을 마치며 나

온 그때, 책의 뒷면에 나온 코엘료의 문구가 나에게 도전정신과 용기를 주고, 다시 호숫가를 맴돌게 했다.

“두려워해도 됩니다. 걱정해도 됩니다. 그러나 비겁하지는 마십시오.

두려움과 마주하고 근심의 순간을 뛰어 넘으십시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용감하십시오,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해 투쟁할 만큼 용감하십시오.

남들이 아닌 바로 '나' 에게 의미 있는 그것을 위해”

신축, 증축과 개축, 보수 작업을 전문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책임시공을 약속드립니다.

지붕 개량 전문업체 공장직영 운영 시공/판매

슬래브 주택, 옥상지붕 건축, 징크 자재전문(기계 임대)
교회, 절, 전원주택, 가든, 공장, 창고 등 어디나 알맞은 용도에 맞추어 선택!

최고의 자재 와 **숙련된 기술력** **최저의 시공비** 로 품질보장과 함께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도 모든 자재를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공장 직영 • 초대형 공장에서 직거래하므로
• 원·부자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 가격이 확실히 저렴합니다. **공장 직거래** **주택 개·보수** 현집, 누수, 방수 보수, 지붕 개량 **건축, 내부인테리어 철 구조물** **APT, 주택 리모델링** **배란다 확장 욕실, 도배, 주방 기실 확장, 정판**



* 유사 상호 주의

지붕개량 **금속칼라강판**



지붕 공사의 대표 주자
대농산업
▶ 본사 및 공장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동 530번지

☎ 062)373-6548, 6549
374-6585



유일한

광주·전남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새롭게 출범한 동아세라믹(주)는 지난 1995년 봉황세라믹스(주)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점토벽돌 생산의 기술력과 여러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점토벽돌 제조회사로서 큰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차별화된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일류 점토벽돌 제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점토바닥벽돌



점토미장벽돌

* 점토벽돌 시공사례



동아세라믹|주
DONG-A CERAMIC CO.,LTD.

본 사: 전남 나주시 봉황면 봉황농공단지길 134-7(구,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1-35)
Tel. 061-331-9000-2 Fax. 061-331-9003
서울지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2-1 크란츠테크노 801호
Tel. 031-737-7890 Fax. 031-777-8325